

인사말씀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한 세계문명전인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에 우리 조계종 직원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번 전시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온 박물관의 직원들의 노고도 치하 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불교의 생생한 흔적을 이해할 수 있는 동서문화의 교류 현장들이 가슴에서 느끼도록 보여주는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을 2천만 불자와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혜초스님께서 역경을 이겨내며 법을 구하신 모습을 이 전시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혜초스님은 727년 신라를 떠나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시고 서역과 둔황 그리고 장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선진문물과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당시의
스님들에게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시가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간 애써
주신 국립중앙박물관과 동아일보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